

민생 정당·강한 야당... '이룬 구동' 나선 민주

정치보복·경제위기 특위 출범 우 위원장 "2개 바퀴 굴리겠다"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전략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보복·경제위기 대응기구를 나란히 띄우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에 따른 내부 혼란상이 '우상호 비대위' 가동과 함께 걷혔다고 판단, 다 시금 단일대오를 꾸려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드

려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두 기구의 출범을 알리며 "경제와 민생이라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현 정권의 탄압에 야당으로서 투쟁 전선을 살리는 또 하나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 발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정당국의 정치적 수사를 여론전을 통해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비롯해 현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등 신규 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강한 야당' 으로서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당 대표 격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특위 지휘봉을 잡기로 한 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부 경고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위는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등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선택적 수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院)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야 강경 기조만 부각될 경우 자칫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만큼 특위는 비상설 체제로 운영키

로 했다.
정치보복수사 수사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에만 즉각 모여 대책을 마련하는, 수비적 대응 기구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4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우선실천단이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에서 비롯된 민생위기 현장을 쟁건다면, 이 특위는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기구다.
정부·여당의 부실한 민생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큰 틀의 대안 정책을 제시, '유능한 민생 정

당' 으로 거듭나겠다는 밑그림이다.
조대변인은 "경제위기대응 특위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외 포용 성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두 특위를 동시에 띄운 것은 정치 투쟁과는 별도로 민생행보도 같이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검수완박에서 비롯된 당의 강성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생 대응에 더 역점을 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부터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진행,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선 패배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야당으로 공수가 교체된 만큼 대야 기조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내일을 바꾸는 미래전략 2024.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 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황식 전 총리 "국힘 '반사이익으로 승리'"

"타협정치 필요...개헌해야" 야 "반성·성찰 모습 없어"

국민의힘의 1호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이하 새미래)에 참석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대화과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 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권력의 독점과 집중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대화와 타협·절충으로 통합해서 국회와 국정을 운영해 더 큰 국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제21대 감사원장

과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전 총리는 이날 연 전 총리 이전까지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가졌던 인물로, 은퇴 후 독일에서 다당제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등 협치를 강조해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을 두고 여야 모두에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편 가르기·무능과 위선적 행태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야당은 지금도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역량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한 야당도 국민의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선과 지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

겠으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라며 "저는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없고 오히려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데 대해서 "유일한 작은 감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 개편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인간의 추악한 면은 완전히 드러나고 나라는 반쪽으로 갈렸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합리적 선거제도, 민주적 정당제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은희, '경찰국' 비판... "윤 대통령 공약 파기"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대해 "법치주의 인식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경찰이) 완전하게 독립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독립성을 아예 무위로 돌리는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 직제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의 소관 업무에 대한 핫라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을 약속했었다면서 "이는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인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안부의 국장으로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공약 파기 부분에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양향자 "거국적 반도체 특위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은 22일 "하루빨리 국회 반도체 특위를 설치해 체계적·거국적으로 반도체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반도체 특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다. 여야나 이념이 따로 없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도,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야당의 양향자가 여당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위원장이 아닌 그저 위원만 되어도 좋고, 참여하지 않아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8월 28일 전당대회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런 일정을 확정했다고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차기 지도부의 구성 및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선출 방식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당 일각에서 나오는 집단 지도부제 주장을 수용하느냐다.

이를 수용할 경우 현재 방식처럼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치르지 않고 한 번의 선거를 통해 1위가 당 대표가 되고 차순위자들은 최고위원이 된다.

두 번째 쟁점은 전당대회 물과 관련해 현행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규정돼 있는 선거 반영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